

프랜차이즈 70개 참가... 창업 최신 정보 한눈에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7
 25~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지역 토종 브랜드 등 160개 부스
 자금·회계 등 무료 법률상담
 17일까지 1대 1 상담 예약도

전국에서 잘나가는 프랜차이즈 업체 70여 개가 오는 25일 광주에 총집결한다.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주최하고 서울, 대전, 대구 등 전국 단위 창업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는 (주)제일좋은전람이 주관하는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7'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3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광주에서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는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토종 브랜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내로라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참가, 최신 트렌드 창업 아이템은 물론 다양한 창업 정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참가한 브랜드의 재참여가 많아 업체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태로 주관사는 올해도 성공개최를 확신하고 있다.

'리얼팝'과 '부자치킨'을 포함한 여러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처음 열린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고 큰 성과를 얻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며 "이번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걸작떡볶이'와 전국에 16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신참떡볶이', 생과일주스전문점 콤비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주최하고 (주)제일좋은전람이 주관하는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7'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3전시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라더스의 패밀리 브랜드인 '베네투아도그', 간편한 한끼에 건강을 가득 담아 제공하는 프리미엄 푸드 '닥터김밥' 등 70여개 업체가 참여 160개 부스 규모로 알차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닭꼬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투모아', 주류 프랜차이즈 '하프9', '생활에', '(주)프레찬' 등 호남지역 토종 브랜드들도 대거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창업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지역민들에게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창업 아이템들을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 창업자금 지원 안내와 법무, 세무, 변리, 회계 등 법률상담도 무료로 진행돼 창업자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람객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1대 1 매칭 서비스를 통해 참가업체 브랜드 대표 또는 본부장과의 사전 상담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현재 박람회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접수 가능하다.

또한 전시 기간 창업박람회의 콘텐츠 강화를 위해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와 공동으로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각 지역 유명 강사를 초청해 예비창업자가 알아야 할 각종 창업 정보와 법률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창업과 프랜차이즈 관련해 진행된다.

홍병열 (주)제일좋은전람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토종 프랜차이즈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은 물론, 다른 지역 유명 브랜드 등 다양한 아이템을 보려는 예비창업자와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활발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을 원하는 지역민과 예비창업자들은 행사전인 오는 24일까지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온라인 사전등록을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입장권은 3000원이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일좋은전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856-1402.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조계현 소장의

톡톡 창업 이야기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경계를!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 중 하나는 오너리스크(owner risk)라는 단어다. 단순히 증권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유명세를 타는 오너들에 대한 용어로 생각했던 예비창업자들은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들의 부도덕한 경영방식이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 가맹점들도 평균 30% 이내의 매출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로 접하면서 새삼 오너리스크의 경멸한 후유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수십, 수백 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데다 2브랜드, 3브랜드 등 멀티브랜드화 된 프랜차이즈 기업의 생리상 일반 기업보다 오너리스크의 여파는 훨씬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오너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으면 언론과 국민들의 눈에는 해당 오너는 물론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까지 부정적으로 묘사되기 십상이기에 프랜차이즈 오너들은 이제라도 본인이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공인임을 인식하고 가맹점에 피해가 될 수 있는 사소한 행위 하나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예비창업자들도 특정 브랜드에 가맹을 희망한다면 단순히 브랜드나 아이템 그리고 본사의 규모에만 생각을 머물지 말고 본사의 오너조차도 가맹점들의 주요 변수임을 자각하고 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소형 규모인 본사들의 오너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맹상담과 가맹계약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에 오너를 판단해 볼 기회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하지만 기업형으로 성장한 본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무자들이나 중간관리자 선에서 최종 가맹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오너를 접할 기회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만일 기업형으로 성장한 오너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지 적어도 월 1회 정도는 아직 가맹점들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들이 참석하는 사업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예비창업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면 훨씬 더 신뢰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그 동안 노출시킨 오너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가맹점에 대한 제품 및 식재료의 공급시스템을 활용한 부당한 마진회포, 다소의 불공정 계약서에 의존한 본사의 갑질, 가맹점 이탈시 본점 출점형 보복, 세금 축소신고나 탈세, 직원 성희롱, 가족과의 과도한 분쟁, 직원들의 과도한 가맹점 압박으로 인한 동반 이미지 실추 등을 꼽을 수 있다.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의 오너리스크는 대표 개인 한명의 리스크 뿐만이 아닌 직원들의 언행과 본사의 운영전략 등에서도 사회적인 물의를 빚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면 곧바로 오너리스크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들도 단지 잘 나가는 본사대표가 아닌 존경받는 본사대표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인정하고 자신을 믿고 기꺼이 가맹계약을 맺은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더 나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번 일련의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들의 사건들을 계기로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는 오너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다. 대개의 경우 진지한 자성과 가맹점과의 상생전략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들도 상당한 수준의 도덕적, 인격적인 수양을 필요로 하며 가맹점과 사회적 공감하는 운영전략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가 단순히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가맹점과의 진정한 상생과 동반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광주·전남·전북 '토종 프랜차이즈' 264개... 전국 6%

외식업 230개 최다... 2위 서비스 10개 업체, 가맹점 100개 이상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광주와 전남, 전북에 본사를 둔 '토종 프랜차이즈'는 26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전북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264개 중 외식업이 230개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21개, 도소매는 13개였다.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는 4268개로 지역 프랜차이즈가 전국의 6.2%를 차지하는 셈

이다. 이중 가맹점을 100개 이상 두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는 10개다.

까투리(영업명 기준·주점)가 451개로 가장 많았으며 투모아(주점)가 264개(지역 5개 별도)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사브향(한식) 182개, 동아리꼬치구이(주점) 175개, 현대옥(한식) 163개(지역 1개 별도), 다사랑(치킨) 145개, 난타 5000 피자(피자) 125개, 신포우리만두(분식) 123개, 이비음감자탕 117개(지역 15개 별도), 임실N 치즈피자(피자) 103개 등이 가맹점 100개를 넘었다.

하지만 지역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업만 프랜차이즈업으로 등록해놓고 가맹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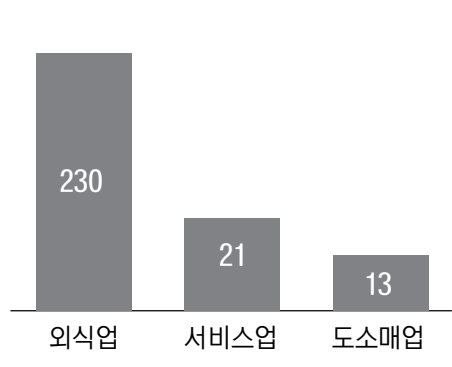
1~2개에 불과하거나 가맹점이 한 개도 없는 무늬만 프랜차이즈인 경우도 허다해 업계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에서는 불공정 거래에 따른 분쟁조정 건수 중 가맹사업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까지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5건으로 이중 가맹사업거래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부를 상대로 위법 의혹에 대해 신고를 하면 본부를 관할하는 지방공정거래사무

■ 업종별 광주·전남·전북 토종 프랜차이즈 (단위:개)



<자료:공정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가 조사권을 갖고, 분쟁 조정에 나서게 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가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09시 오픈! 22시 마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휴식공간 겸하고 그리고 휴식도사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우가격의 2/3

와규 갈비살 20,000원
 와규 눈꽃살 25,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불포화지방산(올리고산)이 대부분인 와규전문점
 - ▶ 돼지갈비 이상 메뉴 주문시 찜질방 20% 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